



태풍에도 추석 성수기 과일 공급은 안정화될 전망

태풍 피해로 배 생산량은 작년보다 25% 내외 감소할 듯

- 배 생산량은 22만톤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
- 사과 생산량은 태풍 피해 있으나, 작년과 비슷한 38만톤 수준 전망
- 포도·복숭아·감귤·단감 생산량에 대한 태풍 피해는 제한적일 듯

추석이 늦어 성수기 출하는 작년보다 사과가 3~8%, 배는 1~5% 많을 듯

- 사과 출하량은 9월 상순에 적겠으나 추석 성수기에 증가
- 포도·복숭아·감귤·단감의 9월 출하는 작년보다 증가할 듯
- 9월 바나나, 파인애플, 키위, 오렌지 수입은 작년보다 감소할 전망

태풍영향으로 사과와 배 비상품률 증가할 듯

- 낙과 및 상처과 다발생으로 사과와 배의 비상품률은 작년보다 증가할 전망
- 배의 흑성병, 적성병 등 병해 발생률은 작년보다 높은 수준
- 포도는 최근 강우로 열과 현상 심해질 듯
- 노지감귤과 단감 품질은 작년보다 양호할 듯

■ 과일 생산량 증감률 전망

단위: %

	사과	배	노지온주	단감	포도
작년대비	0.9	-24.7	2.3	3.0	4.4
평년대비	-15.9	-45.1	-2.3	-9.0	-12.8

농업관측정보는 표본조사와 수급분석모형을 이용한 전망자료이므로 통계청의 통계자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과

■ 사과 도매가격(상품)



■ 사과 반입량



주: 평년은 2007~11년산 일별 자료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9~10월 예상 당도

단위: °Bx

	작년	평년	금년
홍로	13.2	13.8	13.9
히로사키	12.8	13.3	13.4
료카	12.7	13.2	13.5

자료: 농업관측센터 9월 3일 모니터 조사치

■ 사과 월별 도매가격

단위: 원/15kg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012년산	상품	55,733	45,217										
	중품	40,386	34,329										
2011년산	상품	46,316	36,697	42,420	48,472	46,265	47,163	51,395	49,543	61,375	74,891	86,937	98,276
	중품	33,828	27,348	30,773	40,896	33,110	34,377	37,552	38,113	47,897	62,434	74,500	81,793
평년	상품	41,597	31,333	39,048	34,042	34,099	36,158	39,135	38,399	39,326	42,317	44,357	48,758
	중품	30,333	22,278	29,207	27,325	24,265	25,766	26,662	28,097	28,678	32,511	34,010	32,119

주: 가격은 7~8월은 쓰가루, 9월은 홍로, 10월은 양광, 11월 이후는 후지 품종 기준임. 평년은 2007~11년산 가격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동향 8월 쓰가루, 홍로 가격은 작년보다 높아

• 8월 쓰가루, 홍로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특·상·중·하 구분) 15kg에 4만 5천원, 9만 4천원으로 작년보다 각각 23%, 33% 높았다. 이는 대형마트로 출하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도매시장 반입량이 작년보다 33%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태풍피해 낙과율은 5~70%로 지역별 편차 커

- 농업관측센터 지역모니터 조사결과(8.29~31),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인한 낙과 피해율은 5~70%로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충청지역의 낙과율은 10~50%, 영남지역 5~15%, 호남지역은 15~70%로 조사되었다.
- 태풍 덴빈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향후 추가조사에 따라 낙과율은 변동될 수 있다.
- 품종별로는 추석 출하를 앞둔 홍로의 피해가 가장 컸고, 10월 말부터 출하되는 후지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생육 태풍으로 인한 상처과 많아 비상품률 증가

- 생육상황은 양호하였지만, 태풍으로 낙과 및 상처과가 다발생하여 비상품률은 작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월 조사치에서 비상품률은 작년보다 2%p 낮았다.

추석 성수기 사과 가격은 작년보다 높을 듯

- 장마 후 고온건조로 일소 및 엽소 피해와 밀증상 등의 생리장해가 증가하고 있다. 8월 말 기준 병해 발생률은 작년보다 낮고, 충해(노린재·응애류·나무좀·진딧물)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사과 당도는 홍로가 13.9°Bx, 히로사키 13.4°Bx, 료카 13.5°Bx로 작년보다 각각 0.6~0.8°Bx 높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산 홍로는 태풍으로 작년보다 4% 감소 전망

- 올해 단수는 태풍 피해로 전월 조사치보다 5%p 감소하고, 작년과 비슷할 전망이다.
- 생산량은 태풍의 영향으로 전월 조사치보다 1만 7천톤(홍로 4천 8백톤, 후지조숙계 2천 3백톤, 후지 9천 5백톤) 감소하여 작년보다 다소 많은 38만 3천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출하 9월 상순 출하는 작년보다 적고, 중순부터 증가

- 올해는 추석(9월 30일)이 작년보다 18일 늦어 추석에 홍로뿐만 아니라 후지조숙계(료카·히로사키·홍장군)와 시나노스위트, 양광, 감홍까지 출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9월 출하량은 작년보다 16~22% 많은 7만 9천~8만 3천톤으로 예상된다. 홍로 출하는 태풍 피해로 작년보다 감소하여 9월 상순 출하량은 작년보다 크게 적을 것으로 파악된다.
- 9월 중순부터 후지조숙계·양광·감홍 등의 출하가 증가하면서 추석 성수기(추석 전 2주, 9.16~29) 출하량은 작년보다 3~8% 많은 5만 1천~5만 4천톤으로 예상된다.
- 10월 이후 출하량은 작년보다 1~6% 많은 26만~27만 3천톤으로 전망된다.

가격 추석 성수기 사과 가격은 작년보다 높을 듯

- 추석 성수기 사과 도매가격은 작년(홍로 상품 15kg, 4만 6천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석 성수기 출하량은 작년보다 많겠으나, 품질이 좋고 대과물량이 적을 것이기 때문이다. 9월 중순 이후로 가격은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생산량 전망

단위: ha, kg/10a, 천톤, %

	성목면적	단수	생산량
2012년	21,629	1,771	383
2011년	21,395	1,774	380
증감률	1.1	-0.1	0.9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9월 3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품종별 생산량 증감률(작년대비)

단위: %

	후지	쓰가루	홍로	후지조숙계	양광
태풍 이전	6.8	1.7	4.3	3.8	0.5
태풍 이후	2.4	1.3	-4.4	-1.0	-1.5

자료: 농업관측센터 9월 3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지역별 생산량 증감률(작년대비)

단위: %

	강원	충청	경북	경남	호남
태풍 이전	4.6	7.4	5.0	3.6	7.9
태풍 이후	-3.9	-0.1	2.7	-0.4	-8.9

자료: 농업관측센터 9월 3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출하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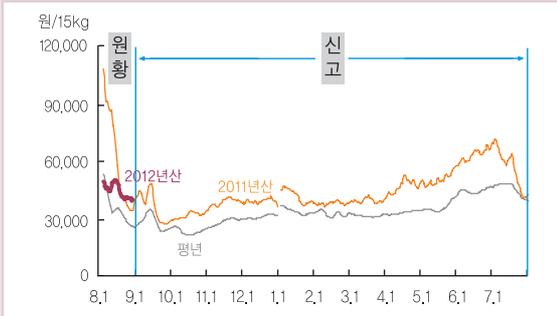
단위: 천톤, %

	9월	10월 이후
2012년	79~83	260~273
2011년	68.0	257.9
증감률	15.6~21.6	0.7~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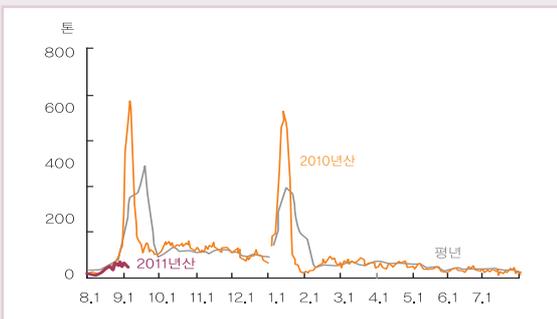
자료: 농업관측센터 9월 3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배

■ 배 도매가격(상품)



■ 배 반입량



주: 평년은 2007~11년산 일별 자료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9~10월 예상 당도

단위: °Bx

	작년	평년	금년
원황	12.4	12.8	12.8
신고	11.9	11.9	12.2

자료: 농업관측센터 9월 3일 모니터 조사치

■ 배 월별 도매가격

단위: 원/15kg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2012년산	상품	43,597											
	중품	35,045											
2011년산	상품	58,601	35,710	31,014	37,643	38,598	42,334	37,154	38,794	46,512	50,303	62,315	55,818
	중품	43,086	23,933	24,081	27,096	27,641	28,963	29,432	29,751	33,707	37,801	48,020	37,870
2010년산	상품	36,260	35,025	28,067	35,026	39,257	43,661	35,097	31,914	32,758	38,538	51,369	64,179
	중품	27,382	21,393	21,359	24,615	27,239	28,635	25,790	20,831	18,761	21,991	31,580	30,943
평년	상품	33,321	29,416	22,912	27,517	30,574	33,592	31,675	31,067	32,606	35,069	43,781	45,496
	중품	26,157	20,506	17,605	19,934	21,812	23,028	22,867	21,946	22,323	24,034	30,508	28,020

주: 가격은 8월은 원황, 9월 이후는 신고 품종 기준임. 평년은 2007~11년산 가격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동향 8월 원황 가격은 작년보다 26% 낮아

- 8월 햇배 원황의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특·상·중·하 구분) 15kg에 4만 4천원(중품 3만 5천원)으로 작년보다 26% 낮고, 평년보다 31% 높았다. 저장배 신고는 3만 8천원으로 작년보다 32% 낮고, 평년보다 16% 높았다.

태풍피해 호남지역의 낙과율은 60~70% 추정

- 농업관측센터 지역모니터 조사결과(8.29~31),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인한 낙과 피해율은 강원·경기지역이 20~30%, 충청지역 20~40%, 호남지역 60~70%, 영남지역은 10~15%로 조사되었다. 태풍 덴빈의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향후 추가 조사에 따라 낙과율은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생육 흑성병과 태풍으로 비상품률 작년보다 높을 듯

- 배 생육상황은 작년보다 양호하였지만 흑성병이 많고, 태풍으로 인해 상처과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비상품률은 작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월 조사치에서 비상품률은 작년보다 2%p 높았다.

추석 성수기 배 가격은 작년보다 높을 전망

- 8월 말 기준 흑성병, 적성병, 복숭아순나방, 깍지벌레, 응애류 발생률은 작년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기 안성과 충남 천안 등에서는 열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배 당도는 원황이 12.8°Bx, 신고 12.2°Bx로 작년보다 각각 0.3~0.4°Bx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태풍으로 신고 생산량 작년보다 26% 감소 전망

- 올해 단수는 태풍 피해로 전월 조사치보다 26%p 감소하여 작년보다 22% 적을 전망이다.
- 생산량은 태풍 피해로 전월 조사치보다 7만 3천톤(신고 6만 3천톤, 원황 2천 5백톤 등) 감소하여 작년보다 25% 적은 21만 9천톤으로 전망된다. 이는 1997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 지역별로는 강원·경기지역이 작년보다 14%, 충청과 영남지역이 각각 15%, 1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호남지역은 태풍 피해가 심해 작년보다 50%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출하 9월 출하는 낙과 많아 작년보다 6~11% 적을 듯

- 올해는 추석이 작년보다 18일 늦어 9월 출하량이 작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낙과 피해가 심했고, 추석 이후 가격상승의 기대심리로 9월 출하량은 작년보다 6~11% 적은 5만 4천~5만 7천톤으로 예상된다.
- 추석 성수기(추석 전 2주, 9.16~29) 출하량은 작년보다 1~5% 많은 4만 9천~5만 1천톤으로 예상된다. 9월 상순 출하는 작년보다 적지만, 중순 이후 경기·충청지역의 출하가 본격화됨에 따라 부족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이후에는 작년보다 27~31% 적은 15만~15만 8천톤으로 전망된다.

가격 추석 성수기 배 가격은 작년보다 높을 전망

- 추석 성수기 배 도매가격은 작년(신고 상품 15kg, 4만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수기 출하량은 작년보다 다소 많겠지만, 태풍으로 추석 수요가 많은 신고의 대과 낙과가 많아 특·상품과 중·하품간의 가격 차이가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9월 상순에는 물량이 적지만, 추석이 가까워질수록 출하가 증가하면서 가격은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생산량 전망

단위: ha, kg/10a, 천톤, %

	성목면적	단수	생산량
2012년	13,346	1,638	219
2011년	13,831	2,100	290
증감률	-3.5	-22.0	-24.7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9월 3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품종별 생산량 증감률(작년대비)

단위: %

	신고	원황
태풍 이전	0.7	-3.4
태풍 이후	-26.2	-14.2

자료: 농업관측센터 9월 3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지역별 생산량 증감률(작년대비)

단위: %

	강원·경기	충청	호남	영남
태풍 이전	0.6	0.3	3.8	-3.3
태풍 이후	-13.7	-15.1	-50.4	-10.7

자료: 농업관측센터 9월 3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출하량 전망

단위: 천톤, %

	9월	10월 이후
2012년	54~57	150~158
2011년	61.2	216.2
증감률	-6.2~-10.8	-27.0~-30.6

자료: 농업관측센터 9월 3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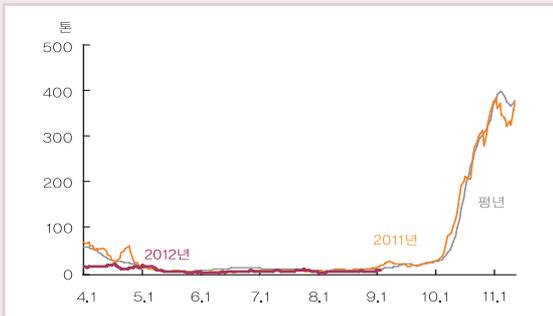


감귤

■ 하우스온주 도매가격(상품)



■ 온주 반입량



주: 평년은 2007~11년 일별 자료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하우스온주 외관 및 크기

단위: %

	작년대비			평년대비		
	좋음	비슷	나쁨	좋음	비슷	나쁨
외관	38.6	49.1	12.3	38.6	49.1	12.3
크기	37.8	59.8	2.4	37.8	59.8	2.4

자료: 농업관측센터 9월 3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하우스온주 월별 도매가격

단위: 원/3kg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2012년	상품	29,036	28,143	20,148	20,701		
	중품	27,261	23,505	14,792	16,631		
2011년	상품	24,814	24,421	20,098	17,627	17,432	18,058
	중품	21,781	22,325	15,903	13,622	13,930	13,381
평년	상품	25,161	19,246	18,072	16,910	17,533	17,472
	중품	21,730	17,079	15,472	13,779	14,162	12,988

주: 평년은 2007~11년 가격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동향 8월 하우스온주 가격은 작년보다 높아

• 8월 하우스온주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특·상·중·하 구분) 3kg에 2만 1천원(중품 1만 7천원)으로 작년보다 17% 높았다. 이는 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도매시장 반입량이 작년보다 21%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고품질의 브랜드 감귤 시장 반입량 감소도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태풍피해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미미

• 농업관측센터 지역모니터 조사결과(8.29~31),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제주 서부와 북제주의 일부지역에서 하우스시설 피해가 있었으나, 수급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지온주의 태풍 피해 또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질 9~10월 하우스온주 품질은 작년보다 양호

• 하우스온주의 외관과 크기는 작년보다 양호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크기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소과(4~6번과) 비율이 높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우스온주 당도와 당산비는 각각 11.2°Bx, 11.0으로 나타났다.

노지온주 생산량은 작년보다 2% 증가 전망



- 제주시와 애월·조천읍에서는 열대야가 20일 이상 지속되면서 착색이 다소 늦어졌지만, 당도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올해 노지온주의 외관은 병충해와 태풍 피해가 크지 않아 작년보다 양호할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과 비율은 작년보다 높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출하 9월 하우스온주 출하는 작년보다 3% 증가할 듯

- 8월까지 하우스온주 출하량은 작년보다 13% 적은 6천톤이다. 유류비 상승에 따른 경영비 부담으로 가온시기를 늦추어 후기 출하비중이 늘어나고, 한라봉 등의 만감류로 품종 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 9월은 추석이 작년보다 늦고, 고온으로 착색이 지연되어 출하량이 작년보다 3%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이후는 작년보다 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격 9월 가격은 작년보다 다소 높을 듯

- 9월 하우스온주 도매가격은 출하량이 작년보다 3% 많지만, 전월과 비슷하게 직거래가 많고 도매시장 반입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작년보다 3% 높은 1만 7천~2만원으로 전망된다.

노지온주 노지온주 생산량은 작년보다 2% 증가 전망

- 올해 노지온주 성목면적은 작년보다 3% 줄었지만, 착과량이 많아 단수는 5%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생산량은 작년보다 2% 많은 56만 2천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월동기 기상이 양호하였고, 생리 낙과량이 평년보다 5% 적었기 때문이다.

■ 노지온주 외관 및 크기

단위: %

	작년대비			평년대비		
	좋음	비슷	나쁨	좋음	비슷	나쁨
외관	45.2	51.5	3.3	52.6	44.2	3.3
크기	42.9	42.9	14.3	52.4	30.3	16.6

자료: 농업관측센터 9월 3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하우스온주 출하량 전망

단위: 천톤, %

	8월까지	9월	10월 이후
2012년	6.1	6.1	6.7
2011년	7.2	5.9	6.2
증감률	-12.6	3.3	7.1

자료: 감귤출하연합회, 농업관측센터 9월 3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노지온주 생산량 전망

단위: ha, kg/10a, 천톤, %

		성목면적	단수	생산량
2012년	2011년대비	-2.6	2.9~7.1	0.3~4.4
	2010년대비	-3.0	18.0~22.9	14.5~19.2
2011년		17,750	3,092	549
2010년		17,828	2,696	481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관측센터 9월 3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단감

■ 단감 월별 도매가격



■ 단감 반입량



주: 평년은 2007~11년 일별 자료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지역별 착과량 증감률(작년대비)

단위: %

	경남	전남	경북	전국
증감률	3.9	2.9	3.5	3.5

자료: 농업관측센터 9월 3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9~10월 예상 당도

단위: °Bx

	작년	평년	금년
서춘	14.2	14.2	14.5
부유	14.5	14.6	15.0
차량	14.7	14.9	15.0

자료: 농업관측센터 9월 3일 모니터 조사치

■ 단감 월별 도매가격

단위: 원

		서춘(10kg)	부유(10kg)			부유(15kg)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2011년산	상품	32,646	25,812	22,711	35,233	40,920	50,781	62,256	40,950
	중품	17,556	19,266	18,392	28,851	33,652	43,075	50,616	28,165
2010년산	상품	38,762	20,516	21,179	35,301	38,588	40,513	42,830	34,526
	중품	19,748	-	15,465	28,478	31,278	30,334	31,709	23,125
평년	상품	32,049	20,186	17,596	29,864	32,232	33,727	39,624	36,341
	중품	17,172	-	12,471	23,188	25,465	25,660	30,665	25,785

주: 평년은 2007~11년 가격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생육 착과량은 작년보다 4% 많아

- 올해 단감 착과량은 일조량이 충분하여 작년보다 4%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경남과 경북 지역이 작년보다 각각 4%, 전남은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8월 폭염과 가뭄으로 일소과(경남 김해·창원·사천·진주, 전남 광양 등)가 1~3% 발생하였으나, 대부분 회복이 가능한 수준으로 상품성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태풍피해 태풍으로 인한 수급 영향은 미미할 듯

-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인해 경남과 전남 일부 지역에 낙과와 잎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였지만, 전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품질 9월 서춘 품질은 작년보다 좋을 듯

- 9~10월에 출하될 단감의 외관과 크기는 과실 비대기에 적절한 강우와 일조량 증가로 작년보다 좋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춘과 차량 당도는 각각 14.5°Bx, 15.0°Bx로 작년보다 0.3°Bx 높고, 부유는 0.5°Bx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단감 생산량은 작년보다 3% 많을 전망

- 8월 말 기준 탄저병(경북 포항, 광주광역시) · 둥근무늬낙엽병 · 흰가루병(경남 사천 · 진주, 전남 광양) 등 병해 발생률은 작년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감꼭지나방 발생은 작년보다 적지만, 깍지벌레 · 노린재류 · 응애류 발생은 작년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생산 생산량은 작년보다 3% 증가할 전망

- 올해 단감 성목면적은 작년보다 5% 줄었지만, 생산량은 작년보다 3% 많은 17만 7천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이는 1차 생리낙과 시기에 기상이 양호하여 낙과가 적었고, 일조량이 많아 단수가 9%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품종별로는 부유와 서촌 생산량이 작년보다 각각 3%, 2%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작년보다 4% 증가하고, 전남과 경북지역은 각각 1%, 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하 9월 출하는 작년보다 20% 내외 증가할 듯

- 9월 출하량은 작년보다 20% 많은 5천 8백~6천 1백톤으로 전망된다. 이는 올해 추석이 작년보다 18일 늦고, 숙기가 빨라 서촌뿐만 아니라 상서 · 태추 · 부유까지 출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추석 성수기(추석 전 2주, 9.16~29) 출하량은 4천 5백~4천 7백톤으로 예상된다. 부유 품종이 대부분인 10월 이후 출하량은 작년보다 2% 많은 15만 5천~16만 3천톤으로 전망된다.

가격 추석 성수기 단감 가격은 작년보다 낮을 전망

- 추석 성수기 단감 도매가격은 작년(서촌 상품 10kg, 4만 9천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9~10월 품질

단위: %

	작년대비			평년대비		
	좋음	비슷	나쁨	좋음	비슷	나쁨
외관	48.3	45.4	6.3	50.1	41.5	8.4
크기	47.2	38.6	14.2	49.5	36.5	14.0

자료: 농업관측센터 9월 3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생산량 전망

단위: ha, kg/10a, 천톤, %

	성목면적	단수	생산량
2012년	11,955	1,479	177
2011년	12,622	1,360	172
증감률	-5.3	8.7	3.0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9월 3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품종별 생산량 증감률(작년대비)

단위: %

	부유	차랑	서촌
증감률	3.2	1.3	1.9
면적비중	82.5	9.5	3.5

자료: 농업관측센터 9월 3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지역별 생산량 증감률(작년대비)

단위: %

	경남	전남	경북
증감률	4.2	1.4	1.6
면적비중	58.4	29.1	8.9

자료: 농업관측센터 9월 3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출하량 전망

단위: 천톤, %

	9월	10월 이후
2012년	5.8~6.1	155~163
2011년	4.9	155
증감률	18.5~19.5	2.4~2.6

자료: 농업관측센터 9월 3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포도

■ 포도 도매가격(상품)



■ 포도 반입량



주1) 평년은 2007~11년 일별 자료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2) 반입량은 국내산과 수입산의 합계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생육상황

단위: %

		좋음	비슷	나쁨
작년대비	캠벨얼리	47.4	28.7	23.9
	거봉	40.1	40.8	19.2
	MBA	57.1	35.3	7.7
평년대비	캠벨얼리	34.9	43.4	21.7
	거봉	26.5	54.3	19.2
	MBA	39.4	52.9	7.7

자료: 농업관측센터 9월 3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포도 월별 도매가격

단위: 원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델라웨어	캠벨얼리	캠벨얼리	거봉	캠벨얼리	거봉	캠벨얼리	거봉	캠벨얼리	MBA
2012년	상품	34,361	14,216	26,663	12,440	16,482	10,759				
	중품	31,490	12,331	21,513	11,071	11,384	9,227				
2011년	상품	27,091	13,892	31,940	15,224	21,553	12,342	15,945	9,963	20,276	17,720
	중품	25,851	11,322	25,721	13,560	15,559	10,382	12,932	7,909	17,247	15,780
평년	상품	24,323	14,760	27,490	14,129	16,482	11,951	14,659	9,203	15,169	13,782
	중품	24,317	11,567	22,129	12,560	10,591	9,517	10,687	7,002	11,322	12,000

주 1) 가격은 5월 델라웨어 2kg, 6월 캠벨얼리 2kg, 7~9월 캠벨얼리 5kg, 거봉 2kg, 10월 캠벨얼리·MBA 5kg 기준임.

2) 평년은 2007~11년 가격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동향 8월 캠벨얼리, 거봉 가격은 작년보다 낮아

- 8월 캠벨얼리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특·상·중·하 구분) 5kg에 1만 6천원(중품 1만 1천원)으로 작년보다 24% 낮고, 거봉은 상품 2kg에 1만 1천원(중품 9천원)으로 13% 낮았다. 8월 포도 전체 반입량은 작년보다 12% 많았다.

생육 태풍으로 열과 현상 심해질 듯

- 9~10월 출하될 포도의 생육상황은 작년보다 양호하고, 송이모양·당도 등 품질도 좋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경기 안성, 충북 영동·옥천, 충남 천안, 경북 영천·상주 등에서는 수확기 잦은 강우로 열과 발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8월 말 기준 탄저병·노균병·갈색무늬병 등 병해 발생률은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감소하였지만, 경북 경산은 수확기 잦은 비로 노균병과 탄저병 발생이 작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포도 당도는 캠벨얼리와 MBA가 각각 14.9°Bx, 17.8°Bx로 작년보다 0.3°Bx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가림 · 노지포도 생산량은 작년보다 3% 많을 전망



- 농업관측센터 지역모니터 조사결과(8.29~31), 태풍 불라벤과 덴빈으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기 안성·안산, 충남 천안, 전북 남원 등에서는 비가림시설이 파손되어 잎이 떨어지고 줄기와 잎이 마르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번 강우로 열과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캠벨얼리 생산량은 작년보다 4% 증가 전망

- 포도 생산량은 작년보다 4% 증가한 28만 1천톤으로 전망된다. 비가림·노지포도는 성목면적이 작년보다 3% 줄었지만, 단수가 6% 증가하여 생산량은 작년보다 3% 많은 23만 5천톤으로 예상된다.
- 품종별로는 거봉이 4만 7천톤으로 작년보다 7% 증가할 전망이다. 캠벨얼리와 MBA는 성목면적이 줄지만, 단수가 증가하여 작년보다 각각 4%, 3% 생산량 증가가 예상된다.

출하 9월 출하량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

- 9월 출하량은 작년과 비슷한 9만 8천톤으로 예상된다.
- 10월 이후는 7만 6천톤으로 작년보다 2%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캠벨얼리, 거봉, MBA 출하가 작년보다 각각 3%, 2%, 3%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가격 9월 캠벨얼리 가격은 작년보다 5% 낮을 듯

- 9월 캠벨얼리 도매가격은 상품 5kg에 작년보다 5% 낮은 1만 4천~1만 6천 원으로 전망된다. 9월 출하량은 작년과 비슷하지만, 열과 발생이 심해져 상품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9~10월 포도 품질

단위: %

		좋음	비슷	나쁨
작년대비	송이모양	47.2	38.6	14.3
	당도	38.7	45.9	15.3
	착색	41.2	40.9	17.9
평년대비	송이모양	33.7	51.2	15.1
	당도	34.1	50.0	16.0
	착색	37.2	46.4	16.4

자료: 농업관측센터 9월 3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9~10월 예상 당도

단위: °Bx

	작년	평년	금년
거봉	17.7	17.4	17.7
캠벨얼리	14.6	14.7	14.9
MBA	17.5	17.7	17.8

자료: 농업관측센터 9월 3일 모니터 조사치

생산량 전망

단위: ha, kg/10a, 천톤, %

		성목면적	단수	생산량
전체	2012년	14,644	1,919	281
	2011년	14,720	1,828	269
	증감률	-0.5	4.9	4.4
시설	2012년	2,247	2,035	46
	2011년	1,998	2,016	40
	증감률	12.5	0.9	13.6
비가림·노지	2012년	12,397	1,898	235
	2011년	12,722	1,799	229
	증감률	-2.6	5.5	2.8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9월 3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품종별 생산량 증감률(작년대비)

단위: %

	델라웨어	거봉	캠벨얼리	MBA
성목면적	20.2	4.5	-1.5	-4.3
단수	1.1	2.4	5.6	8.1
생산량	21.5	7.1	3.9	3.4

자료: 농업관측센터 9월 3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출하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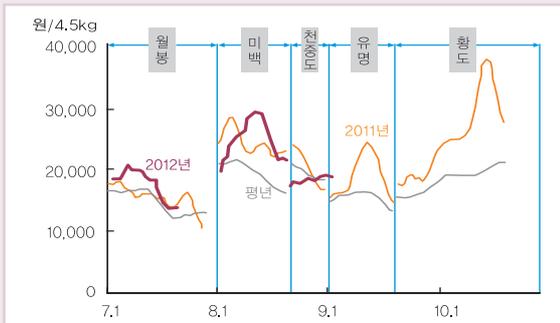
단위: 천톤, %

	9월	10월 이후
2012년	98.3	76.4
2011년	98.0	74.9
증감률	0.3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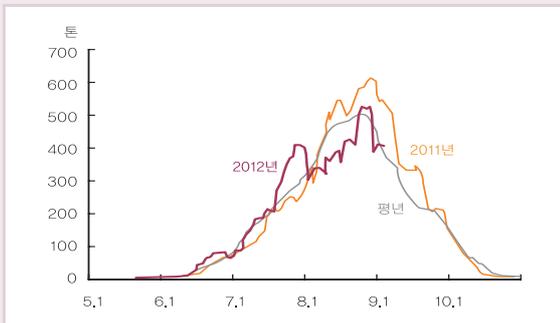
자료: 농업관측센터 9월 3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복숭아

■ 유모계 복숭아 도매가격(상품)



■ 복숭아 반입량



주: 평년은 2007~11년 일별 자료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생육상황(작년대비)

단위: %

		좋음	비슷	나쁨
유모계	중생종	33.6	40.7	25.7
	만생종	35.4	50.5	14.1
천도계	중생종	31.9	42.9	25.2
	만생종	34.4	45.9	19.6

자료: 농업관측센터 9월 3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복숭아 월별 도매가격

단위: 원/4.5kg

		6월	7월	8월		9월		10월
		암킹 5kg	월봉	미백	유명	황도	환타지아	황도
2012년	상품	13,312	17,817	21,301	15,367			
	중품	10,192	12,916	14,917	12,795			
2011년	상품	14,003	15,103	21,854	14,090	22,774	25,776	27,995
	중품	10,093	10,326	15,027	11,216	14,875	22,200	21,174
평년	상품	13,753	14,840	17,071	8,856	20,534	30,942	18,464
	중품	9,937	10,257	11,796	7,308	13,851	21,242	13,517

주: 평년은 2007~11년 가격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동향 8월 미백 가격은 작년 수준, 레드골드는 높아

- 8월 유모계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특·상·중·하 구분) 4.5kg에 미백이 2만 1천원으로 작년과 비슷, 유명은 1만 5천원으로 작년보다 7% 높았다. 천도계인 레드골드는 상품 15kg에 2만 8천원으로 작년보다 58% 높았다.
- 이는 8월 복숭아 전체 반입량이 작년보다 19% 적었고, 품질은 작년보다 양호하였기 때문이다.

생육 태풍 불라벤으로 인한 피해 크지 않아

- 중·만생종의 생육상황이 양호하여 9월에 출하될 복숭아의 당도와 색택은 작년보다 매우 좋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 농업관측센터 지역모니터 조사결과(8.29~31), 태풍 불라벤과 덴빈으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생종 복숭아의 출하가 대부분 종료되었고, 9월 이후 만생종의 주 출하지(경북 영천 37%, 충북 음성 27%, 경북 경산 13%)에서의 태풍 피해가 크지 않아 전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 태풍으로 인한 경기 이천의 낙과율은 5~10%, 충북 충주는 30% 내외로 나타났다. 향후 추가 조사에 따라 낙과율은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만생종 복숭아의 생산량은 작년보다 다소 많을 전망



- 장마 후 고온건조로 인한 일소 피해, 열과, 핵할 등의 생리장해가 증가하고 있다. 8월 말 기준 병해 발생률은 작년보다 낮고, 복숭아순나방·각지벌레·진딧물·응애류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월 조사치에서 나무좀과 갈색여치 발생률은 작년보다 각각 0.4%p, 1.5%p 높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낮아졌다.

생산 ■ 복숭아 생산량은 작년보다 3% 증가 전망

- 올해 성목면적과 단수는 작년보다 각각 1%, 3% 증가하여, 생산량은 작년보다 3% 많은 19만 1천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품종별로는 유모계 생산량이 작년보다 4% 증가하고, 천도계는 면적이 줄어 4%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9월 이후 출하될 만생종 복숭아의 생산량은 5만 8천톤으로 작년보다 다소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하 ■ 9월 출하량은 작년보다 다소 많을 듯

- 9월에는 주로 유명, 아부백도, 황도, 엘버트, 양홍장, 단금도(유모계)와 환타지아(천도계)가 출하된다. 유명은 9월 초에, 환타지아는 9월 중순에 출하가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 만생종 복숭아의 출하시기는 숙기가 빨라 작년보다 7~10일 앞당겨질 것으로 조사되었다. 9월 출하량은 작년보다 다소 많은 6만 2천톤으로 예상된다.

가격 ■ 9월 황도 가격은 작년보다 다소 높을 듯

- 9월 황도 도매가격은 상품 4.5kg에 작년보다 5% 가량 높은 2만 3천~2만 5천원으로 전망된다. 9월 출하량은 작년보다 다소 많지만, 품질이 매우 양호하기 때문이다.

■ 9월 복숭아 품질(작년대비)

단위: %

		유모계	천도계
크기	좋음	23.5	37.5
	비슷	47.8	36.6
	나쁨	28.7	25.9
당도	좋음	48.1	56.5
	비슷	44.6	36.6
	나쁨	7.2	6.9
색택	좋음	39.7	43.5
	비슷	52.1	55.1
	나쁨	8.2	1.4

자료: 농업관측센터 9월 3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생산량 전망

단위: ha, kg/10a, 천톤, %

		성목면적	단수	생산량
전체	2012년	9,584	1,989	191
	2011년	9,538	1,940	185
	증감률	0.5	2.5	3.0
유모계	2012년	7,704	2,093	161
	2011년	7,586	2,037	155
	증감률	1.6	2.8	4.4
천도계	2012년	1,880	1,562	29
	2011년	1,952	1,566	31
	증감률	-3.7	-0.2	-3.9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9월 3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만생종 출하시기(작년대비)

단위: %

빠름	비슷	늦음
82.5	14.8	2.7

자료: 농업관측센터 9월 3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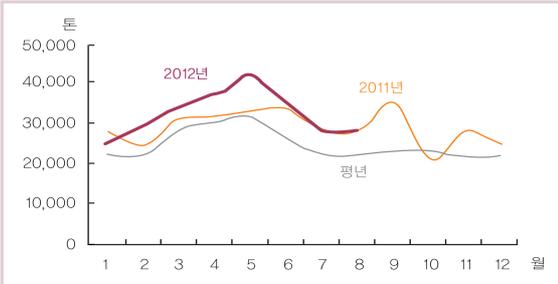
■ 9월 출하량 전망

단위: 천톤, %

	2011년	2012년	증감률
출하량	60.9	61.8	1.4

자료: 농업관측센터 9월 3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바나나 수입량



■ 파인애플 수입량



주: 평년은 2007~11년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 바나나 수입단가와 도매가격(상품)

단위: 달러/kg, 원/13kg, %

	수입단가			도매가격		
	2011	2012	증감률	2011	2012	증감률
1~6월	0.71	0.74	5.1	18,901	19,172	1.4
7월	0.72	0.67	-6.3	18,538	15,692	-15.4
8월	0.64	0.58	-9.2	15,500	14,519	-6.3
9월	0.69			15,565		
평균	0.70	0.72	2.5	18,430	18,155	-1.5

■ 파인애플 수입단가와 도매가격(상품)

단위: 달러/kg, 원/12kg, %

	수입단가			도매가격		
	2011	2012	증감률	2011	2012	증감률
1~6월	0.69	0.77	11.7	16,336	19,982	22.3
7월	0.76	0.71	-6.9	16,982	16,763	-1.3
8월	0.65	0.64	-1.3	14,791	15,349	3.8
9월	0.76			16,617		
평균	0.69	0.75	7.9	16,224	19,000	17.1

주: 수입단가 평균은 1~8월 총수입액/총수입량으로 계산함
자료: 한국무역협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7~8월 과일 수입량은 작년보다 3% 증가

- 7~8월 과일 수입량은 8만 8천톤을 기록하여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증가하였다. 오렌지, 포도, 체리 수입은 작년보다 각각 21%, 37%, 98% 증가하였고, 바나나는 1%, 파인애플·키위는 각각 3% 감소하였다.

바나나 9월 수입은 작년보다 감소할 듯

- 8월 바나나 수입단가는 kg당 0.58달러로 작년보다 9% 낮았고, 수입량은 2만 8천톤으로 작년과 비슷하였다.
- 8월 바나나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특·상·중·하 구분) 13kg에 1만 5천원으로 작년보다 6% 낮았다.
- 바나나는 국내산 과일 가격의 하락으로 수입량이 대폭 줄었으며, 9월 수입량은 작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인애플 9월 수입은 작년보다 감소할 듯

- 8월 파인애플 수입단가는 kg당 0.64달러로 작년과 비슷하였고, 수입량은 4천 7백톤으로 작년보다 25% 적었다.
- 8월 파인애플 도매가격은 상품 12kg에 1만 5천원으로 작년보다 4% 높았다.
- 9월 파인애플 수입량은 필리핀의 생산량 감소로 작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가을부터 요식업체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된다.

9월 바나나 · 파인애플 · 키위 · 오렌지 수입 모두 작년보다 감소

키위 9월 수입은 작년보다 감소할 듯

- 8월 수입단가는 kg당 2.60달러로 작년보다 9% 낮았다. 8월 키위 도매가격은 상품 10kg에 3만원으로 작년보다 27% 낮았다.
- 8월 수입량은 2천 9백톤으로 작년보다 38% 적었다. 9월은 칠레산 재고량이 충분하여 작년보다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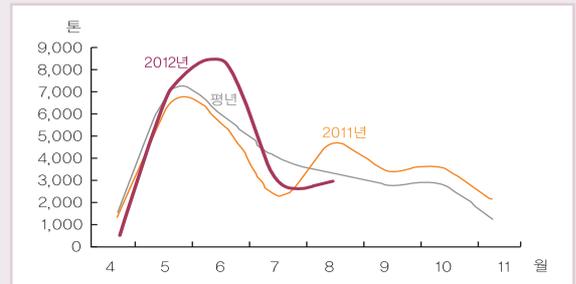
오렌지 9월 수입은 작년보다 감소 예상

- 8월 수입단가는 kg당 1.42달러로 작년보다 16% 높았다. 그러나 재고량이 충분하여, 8월 오렌지 도매가격은 상품 18kg에 2만 9천원으로 작년보다 4% 낮았다.
- 8월 초 미국산 발렌시아 수입이 종료되면서 남아공산이 수입되고 있다. 호주산과 칠레산 네이블 오렌지의 재고량이 충분하여, 9월 오렌지 수입은 작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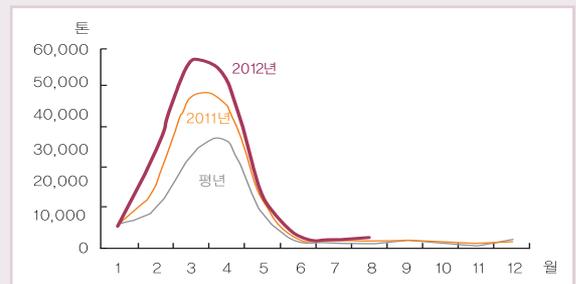
포도·체리 9월 포도 수입은 비슷, 체리는 종료 예정

- 8월 포도 수입량은 497톤으로 작년보다 6% 증가하였다. 9월 추석에 따른 국내산 공급 증가로 중순부터 수입포도의 판매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수입량은 작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 홈쇼핑 등 수입과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8월 체리 수입량은 1천 8백톤으로 작년보다 78% 증가하였다. 8월로 체리 수입은 종료된다.

■ 키위 수입량



■ 오렌지 수입량



주: 평년은 2007~11년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 키위 수입단가와 도매가격(상품)

단위: 달러/kg, 원/10kg, %

	수입단가			도매가격		
	2011	2012	증감률	2011	2012	증감률
4~6월	2.49	2.38	-4.7	38,556	33,101	-14.1
7월	2.30	2.46	6.9	39,885	27,596	-30.8
8월	2.87	2.60	-9.1	40,944	29,759	-27.3
9월	2.55			41,550		
평균	2.56	2.42	-5.4	39,299	31,331	-20.3

■ 오렌지 수입단가와 도매가격(상품)

단위: 달러/kg, 원/18kg, %

	수입단가			도매가격		
	2011	2012	증감률	2011	2012	증감률
1~6월	1.19	1.26	5.6	43,520	44,035	1.2
7월	1.08	1.22	12.7	36,019	36,692	1.9
8월	1.22	1.42	16.3	30,407	29,352	-3.5
9월	1.30			39,000		
평균	1.19	1.26	5.9	40,943	41,282	0.8

주: 수입단가 평균은 1~8월 총수입액/총수입량으로 계산함.
자료: 한국무역협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9~11월의 기상

※기상청(www.kma.go.kr), 2012년 9월 3일 발표

■ 9월 예보

	평균기온	강수량
중순	평년(18~22°C)보다 높음	평년(46~90mm)보다 많음
하순	평년(16~21°C)과 비슷	평년(24~63mm)과 비슷

■ 지역별 9월 순별 예보(평년 기준)

	평균기온		강수량	
	중순	하순	중순	하순
전국 평균	18~22°C보다 높음	16~21°C와 비슷	46~90mm보다 많음	24~63mm와 비슷
서울·인천·경기	20~21°C보다 높음	18~19°C와 비슷	52~61mm보다 많음	24~37mm와 비슷
강원 영서	18~20°C보다 높음	16~17°C와 비슷	57~69mm보다 많음	25~38mm와 비슷
강원 영동	20°C보다 높음	18~19°C와 비슷	83~90mm보다 많음	51~63mm와 비슷
대전·충남	20~21°C보다 높음	17~19°C와 비슷	47~67mm보다 많음	33~37mm와 비슷
충북	18~21°C보다 높음	16~19°C와 비슷	51~64mm보다 많음	34~38mm와 비슷
광주·전남	21~22°C보다 높음	19~21°C와 비슷	49~70mm와 비슷	31~46mm보다 많음
전북	21~22°C보다 높음	19°C와 비슷	46~54mm와 비슷	34~38mm와 비슷
부산·울산·경남	19~22°C보다 높음	17~21°C와 비슷	48~82mm와 비슷	35~58mm보다 많음
대구·경북	19~22°C보다 높음	17~20°C와 비슷	48~65mm와 비슷	31~57mm와 비슷
제주	23~24°C보다 높음	21~23°C와 비슷	75~95mm와 비슷	55mm보다 많음

■ 10~11월 예보 (2012. 8. 23 발표)

- 10월 :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이동성 고기압과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으나 후반에 일시적으로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쌀쌀한 날씨를 보일 때가 있겠음.
- 11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음. 이동성 고기압과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기온의 변동폭이 큰 가운데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음.

과일관측 2012년 10월호 예고(예정일자: 2012. 10. 5)

- 가 격 동 향 : 사과, 배, 감귤, 단감, 포도
- 출 하 동 향 : 사과, 배, 감귤, 단감, 포도
- 생 산 전 망 : 사과, 배, 감귤, 단감, 포도
- 수 입 동 향 : 오렌지, 포도, 바나나, 파인애플, 키위
- 기 상 예 보 : 10~12월 기상

이 『농업관측(과일)』은 인터넷(<http://aglook.krei.re.kr>) 및 농업 전문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농업관측월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 내의 【질의응답】을 선택한 후 【글쓰기】를 이용하여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 【KREI 회원】에 가입하시면 과일관측월보를 전자우편(e-mail)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krei.re.kr> ☎ 02) 3299-4352 FAX: 02) 957-4572

<http://www.mifaff.go.kr> ☎ 02) 500-1930 FAX: 02) 507-3965

- 담당자 : 한재환(과일관측팀장), 신유선(사과, 복숭아), 이미숙(배, 포도), 윤종민(감귤, 단감), 김주혜(수입과일), 윤경진(그래픽, 기상)
- 감 수 : 김병률(농업관측센터장), 이용선(원예실장)

이 「농업관측(과일)」은 농림수산물부 지원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가 농업인들의 재배의향, 작황, 가격 등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분석한 후, 농업 및 통계 전문가들에게 자문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과일 관측은 사과, 배, 포도, 감귤, 단감, 복숭아 등 6개 품목에 대하여 매월 5일에 발표됩니다. 전망 결과는 앞으로 기상 및 수급여건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보 및 속보 관련 정보를 SMS 문자로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농업관측센터 홈페이지(<http://aglook.krei.re.kr>) 또는 담당자(02-3299-4285)에게 연락바랍니다.